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 동네 워터파크로 변신한 초등학교 운동장

권 경 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오늘날 도시에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 아마도 공원이나 놀이터, 혹은 쇼핑몰 정도가 떠오를 것이다. 공원은 다수의 시민이 모이기는 하지만 각자의 목적에 따라 시간을 보낸다는 점에서 공동체를 경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상대적으로 공동체성이 강한 놀이터는 아이들이라는 특정 세대에 한정된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어쩌면 쇼핑몰이야말로 현대 도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동체 공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 정해진 공간에서 모든 시간과 경험이 자본과 소비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공동체 본래의 의미가 발현될 수 없는 구조이다.

그 외에 최근 종종 언급되는 곳이 바로 학교 공간이다. 하지만 대학은 그 잠재성에 비해 지역과의 연계에 아주 인색하거나 편향되어 있고, 중·고등학교는 입시 위주의 학습공간으로 치우쳐 있다. 그나마 초등학교는 아직까지 자유로운 활동을 즐기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새로운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다. 실제로 많은 초등학교에서 학교 개방이나 공간을 활용한 실험적 프로그램이 시도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서울시 성북구와 성북문화재단에서는 초등학교 운동장을 몰놀이장으로 바꾸는 실험을 5년째 하고 있다. '성북 문화 바캉스'라는 이름으로 초등학교 운동장에 대형 풀장을 비롯해 유아 풀장, 슬라이드,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 부스, 공연 등을 준비하여 단순히 물놀이를 즐기는 차원을 넘어 동네 워터파크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 한여름날의 축제에 가까운 프로그램이라 하겠다. 지금은 여러 자치구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성북구 고유의 특색을 살려내지는 못하고 있다.

애초 '성북 문화 바캉스'의 취지는 소박했다.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와 여가 생활에서 소외되는 이들에게 짧은 기간이라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자는 것이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휴가를 떠나기도 하지만, 여전히 맞벌이부부나 자영업자 그 외 소외계층 가정은 제대로 휴가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올해에도 할머니와 사는 초등학생이 몇 년 동안 수영장 한 번 가 보지 못했는데, '성북 문화 바캉스'에 와서 정말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 '문화 바캉스'로 변신한 초등학교 운동장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어우러지는 통합과 교류의 장이 된 셈이다.

지역사회에서 학교는 여전히 담장이 높게 느껴지는 게 현실이다. 특히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고유의 의미를 넘어선다. 이제 초등학교는 각 지역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활동하는 공간으로서, 지역사회의 매개와 연결의 공간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방과후교실 및 돌봄교실, 그 외 특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학교에서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개방하여 주민들의 생활체육이나 산책과 운동을 도와 주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이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시민들과 함께 공통의 경험과 자원을 축적하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 교사와 지역예술가, 학부모와 활동가들이 서로 만나야 한다. 형식적인 만남이 아닌, 교육청이나 자치단체 등의 사업으로 만나는 것이 아닌, 만나서 서로 필요한 사업을 기획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청과 자치단체는 이러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성북 문화 바캉스'처럼 초등학교 운동장이 지역의 공공 공간으로서 누구나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된다면, 지역 문화의 쇠락이라는 흐름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에게 멋진 경험과 추억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경험과 추억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더 중요하다. 로마제국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이런 말을 남겼다. "노파나 노인에게서 원숙미 같은 것을 보고, 아이들의 매력을 순결한 눈으로 본다." 어쩌면 지역의 공공 공간에서의 경험은 그러한 시선을 갖도록 하는 출발 지점이 될 것이다.

종교칼럼

#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중 현
광주 증심사 주지

어린 시절의 기억 한 토막. 70년대 초반만 해도 TV에서 권투 중계를 자주 했다. 특히나 낯선 이국 땅에서 원정 경기라도 하는 날이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동네 사람들이 모두 TV 있는 집에 모여서 흑백 브라운관이 뚫어져라 시청하곤 했다. 난타전이 이어지고 우리 선수가 좀 밀리는 듯하면 '저러다가 다운되면 어쩌나' '다운되서 못 일어나면 어쩌나'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그런데 마치 미리 보기라도 한 사람처럼 확신에 차서 "저 봐라! 안된다! 에잇…졌다! 졌어!"라고 거칠게 말하는 어른이 꼭 한두 사람 있었다. 그럴 때마다 불안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속에서 짜증이 확 나곤 했었다. 그때만 해도 유교 문화가 당연시되던 시절이라 어린 것이 감히 따박따박 말대꾸하지는 못하고, 대신 어떻게든 우리 선수가 이기기를 마음 속으로 간절하게 바라고 또 바랐다.

희망(希望). 바랄 희에 바랄 망, 바라고 또 바란다는 말이다. 소원(所願)은 바라는 바. 그러니까 희망, 소원, 바람 모두 같은 말이다. 절에 기도하러 오는 신도분들 중에 더러 이런 분들이 있다. 이분들의 스토리 전개 패턴은 거의 일정하다. "제가 딱히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런데…"라며 가족 중에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마치 같은 대본을 읽는 것처럼 이구동성으로 이런 식으로 말한다. 가족도 없고 집도 없는 내가 듣기에는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굳이 일부러 찾아내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에둘러서 은근히 자식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사소해 보이는 그 하나의 결핍이 당사자에게는 무척이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양이다. 희망할 거리가 없다면 어떻게든 찾아내고야 마는 것이 인지상정일까. 그게 뭐든 희망할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듯하다.

살다 보면 온갖 이유로 희망을 잃을 때가 있다. 지금의 삶에 지극히 만족해서 바라는 바가 없거나, 아니면 숱한 좌절의 경험으로 희망해 봐야 소용없음을 터득해서…. 뭐, 이유는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면 왠지 아주 중요한 뭔가를 잃은 듯한 느낌에 빠져들 것 같다. 마치 희망이 삶의 필수 요소라도 되기라도 한 것 같다.

그런데 문득 의구심이 일어난다. '고양이에게도, 멧돼지에게도, 나비에게도 희망이 있을까? 희망 한 쪼가리라도 없다면 마치 인생 포기자로 낙인 찍힐 것 같은 인간 세상이 과연 정상일까?

희망, 소원, 바람 이들은 모두 욕망의 표현이다. 굳이 내 맘대로 구별지어 말하자면 소원은 남이 이루어 주는 것에 가깝고, 희망은 내가 스스로 이루는 것이라고나 할까. 바람이라고 하면 상당히 포괄적이다.

가끔 나도 모르게, '오늘은 뭐 하나 뜻대로 되는 일이 없구만…'하고 푸념하는 날이 있다. 마치 내가 뭘 원하는 지 진즉부터 환하게 꿰뚫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뭐하나 제대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다. 애초에 내가 원했던 그 무엇은 흐릿하고 애매하고 언어화되지 않은 일종의 감정 덩어리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비로소 막연한 느낌에 대해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말이나 글로 드러내 표현하게 된다. 그 때야 비로소 내가 뭘 욕망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애초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 대책없이 부딪히는 것보다 먼저 자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막연한 바람이 있다면 구체적인 소원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소원이 있다면 희망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희망이 있다면 희망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도는 마음 속의 희망을 형상화하는 일련의 행위이다. 희망을 형상화하는 가장 큰 이유는 희망을 구체화하고 의식화하는 것, 즉 자각하는 것이다. 자각된 희망은 곧 의지이다. 희망을 의지화하는 과정에서 희망은 전망이 되고 비전이 되고 현실을 바꾸는 실천 전략이 된다. 욕망이 없다면 산 자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 그러므로 희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품는 것은 산 자의 숙명이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설움의 날들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리라."

인간은 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굳이 푸시킨의 시를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들은 이 사실을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다.

기 고

# 공중화장실의 황화수소와 나프탈렌

이 영 우
광주환경공단 하수처리팀장

주말에 더위도 식힐 겸 집 근처 ○○산장을 찾았다. 좌우로 늘어선 가로수의 가지들이 뻗어 나와 도로를 온통 그늘로 만들어 놓았다. 그래 산장으로 가는 내내 기다란 터널 속을 지나가는 느낌이었다.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 주는 시원한 바람과 함께 맴맴 울어 대는 매미 소리가 어우러져 그동안 회사 일로 복잡했던 머리를 맑게 해 주는 보약과도 같은 나들이였다.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서 가져온 과일과 오이를 먹으면서 가벼운 산책을 해 본다. 시간이 지나니 화장실이 급해 근처 공중화장실을 찾았다. 다중이 사용하는 화장실 치고는 깔끔하고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고 관리를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변기 앞에 섰는데 소변기 배출구에 수북이 쌓인 나프탈렌이 눈에 띈다. 화장실 악취를 커버하기 위해 놓았으리라 짐작된다. 산책을 끝내니 슬슬 배고픔이 느껴졌다. 출출함을 안고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주막집에 들려 막 부친 파전 한 장에 살얼음이 살짝 낀 막걸리를 여러 잔 마셨더니 알딸딸하게 기분이 좋아짐을 느꼈다.

하산하기 전 식당 내에 위치한 화장실에 들렀다. 소변기 앞에 서니 여기에도 나프탈렌이 수북이 쌓여 있다. 이 동네 화장실 악취는 모두 나프탈렌이 책임지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다. 이렇듯 요즘에도 공중화장실이나 음식점 식당 화장실 소변기에 악취 제거를 위해 알약 형태의 나프탈렌 등이 놓여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화장실을 사용하는 이들은 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수단쯤으로 여기거나 아무 생각 없이 이용하는 것도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흔히 사용하는 나프탈렌은 우리 몸에 얼마나 안전한 물질일까? 놀랍게도 국제암연구소(IARC)는 2002년부터 나프탈렌을 인체 발암가능 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나프탈렌의 유해성을 파악해 2013년에 나프탈렌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말한다.

나프탈렌은 발암 가능성이 있고 섭취 또는 피부 접촉을 통해 신체에 흡수되며 알레르기 반응과 빈혈 및 시력 저하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다. 나프탈렌에 고농도로 노출되면 혈액 중 적혈구가 파괴돼 혈뇨가 나올 수 있는 용혈 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생식기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임산부에게는 태아에게 전달될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면역 체계가 약한 어린아이들에게는 용혈성 빈혈이 발생할 수도 있다.

나프탈렌이라는 물질이 대부분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변하는 성질(승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소변기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발암물질을 흡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공중화장실에서 황화수소 중독으로 한 여고생이 의식불명에 빠졌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고 놀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사실 그간 공중화장실에서 이런 인명 사고는 종종 있어 왔다. 공중화장실 정화조는 화장실 오수를 유입시켜 혐기성 미생물에 의해 분해 및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미생물을 통해 유기물질을 줄이고 악취 발생원도 제거하는 것이다.

건강한 정화조에서는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 건강한 정화조란 정화조 속의 미생물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정화조를 말한다. 때문에 정화조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만약 정화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내부 황화수소가 증가하고 외부로 확산되어 악취가 발생되거나, 외부로 원활히 배출이 안 될 시에는 고농도의 황화가스가 화장실로 역류하게 된다. 그렇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한데 소변기에 놓인 나프탈렌 등이 일정 부분 정화조로 녹아들어 정화조 내 혐기성 미생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화조에 독성 물질이 쌓이게 되면 정화조 역할인 분해 및 안정화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의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칫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 또한 꼭 기억하시길 바란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0 0633/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 '춤 허용 조례' 로비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붕괴 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춤 허용 업소' 조례 제정에 주류업계의 광범위한 로비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광주 서구의회는 2016년 6월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 불과 한 달 뒤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서는 150㎡ 이하 영업장이 대상이었지만, 부칙으로 '조례 시행 이전 영업장 면적 내로 춤 허용업소를 지정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대상 범위를 대폭 넓혔다. 이 덕분에 문제의 클럽 등이 불법 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를 면하고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공교롭게도 동구와 북구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가 발의됐었다. 하지만 동구에서는 부결됐고 북구는 논란 끝에 가결됐다. 동구의 한 의원은 "특혜성 조례가 서구와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이 의아했다"고 말했다. 북구에서는 조례 제정 주민공청회에서 지역 주류 판매 및 유통업자가 직접 나서 찬성 측 의견을 주도했다 한다. 북구의 한 의원은 "2017년 3월 처음 조례가 발의됐을 때 의원 19명 중 5명만 찬성했는데 3개월 후에는 찬성이 14명으로 늘었다"며 "이 과정에서 주류업계가 일부 의원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조례 제정에 관여했던 의원들이 '로비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음에도 클럽 등이 주류의 대량 소비처라는 점에서 클럽과 지역 주류 유통업체와 유착 가능성에 대한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구정이나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일부 업자들이 로비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당 의원들은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경찰은 사고 원인 규명은 물론 '조례 로비'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 클럽 붕괴 사고의 전모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 일제 잔재물에 단죄문 친일청산 시작이다

광주시가 시내 곳곳에 남아 있는 일제강점기 시절 친일 잔재물에 단죄문을 설치하는 작업에 나섰다. 이는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광주시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첫 단죄문은 일본 신사(神社) 터가 있었던 광주공원에 세워졌다. 이곳에 첫 단죄문을 세운 것은 8·15 광복을 맞아 광주 시민들이 광주공원 계단과 광장 터만 남기고 신사를 부순 상징성을 기렸기 때문이다. 8일 열린 첫 단죄문 제막식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참석했다.

광주시는 광주공원을 시작으로 모두 65개의 친일 잔재물에 순차적으로 단죄문을 설치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친일 잔재 조사 팀 운영과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비석·누정 현판·교가·군사시설 등 65개의 친일 잔재물을 찾아냈다. 단죄문에는 검증된 기록을 토대로 친일 인사의 행적을 정확히 기록하기로 했다.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기록해 시민과 후대에 널리 알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친일 청산이다. 친일 잔재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 자리에 단죄문을 함께 세우기로 한 것도 후세들의 역사 교육을 위해 잘한 결정이다. 광주공원에는 친일파 윤웅렬·이근호·홍난유의 공적비가 있는데 비석을 없애지 않고 뿌리를 뽑은 채 그 자리에 눕혀 놓았다. 눕혀진 친일파 공적비에는 이들의 친일 공적이 자랑스럽게 적혀 있다. 공적비 옆에 친일 행적을 낱낱이 지적하는 단죄문을 세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보다 더 효과적인 현장 교육은 없을 것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넘어 반일 감정으로까지 번지고 있지만 보다 차분할 필요도 있다. 일제 잔재물에 대한 단죄물 설치가 반일(反日)이 아닌 극일(克日)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

無等鼓

# 방사능 올림픽

올림픽은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국제 스포츠 축제로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한데 모여 조국의 명예를 걸고 기량을 겨룬다. 건강한 신체를 가진 젊은이들이 정정당당히 싸우는 스포츠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있다. BC 77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된 고대 올림픽은 1896년 근대 올림픽으로 부활해 내년 도쿄에서 32회째를 맞는다.

일본은 도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부터 거액의 뇌물 스캔들과 공식 엠블럼 도용 사건 등으로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더니 이번엔 '방사능 올림픽'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아베 정부는 1964년 도쿄올림픽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룬 기억을 되살려 내년 대회를 8년 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의 상처를 극복하는 '부흥 올림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선수단에 공급하고, 성화 봉송 출발지를 폭발사고가 일어난 핵발전소 인근으로 했으며, 한국인들의 관심이 많은 야구는 사고 지점에서 불과 70㎞ 떨어진 경기장에서 치른다.

여기에 '먹어서 응원하자'라는 캠페인을 벌이며 '후쿠시마가 이제는 안전하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아베가 욕망한다고 해서 방사능이 통제될 수는 없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가 각종 방사능 수치를 은폐하고 있고, 고준위 방사성 오염 수 100만t 이상을 태평양에 몰래 방류하려 한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방사능 올림픽에 대한 불안과 반일 감정이 확산되면서 '보이콧' 요구도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는 '선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응답이 68.9%를 차지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불참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기간 중 자체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인류 평화의 제전이 과거 침략의 역사에 대한 반성 없이 오히려 경제 보복을 감행한 아베 정권을 위한 정치 홍보 대상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도쿄 올림픽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선수들의 보호를 위해 보이콧 여부를 포함해 다양한 대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겠다.

/유제관 편집1부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편집국안내 |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
|---|---|---|---|
|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61 | 〈FAX 222-8005〉 | 〈FAX 222-0195〉 |
| 정치부 220-0632 | 체육부 220-0633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무국 220-0551 |
| 경제부 220-0663 | 예향부 220-0692 | 〈FAX 222-0195〉 | 〈FAX 222-0195〉 |
| 사회부 220-0652 | 사진부 220-0694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전남본부 220-0642 | | | 〈FA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